

총체적 경기 위기 속에도 돌파구는 있다

기축년(己丑年) 새해가 밝았다. 으랏차차 장막을 헤치고 솟아 오르는 해의 기운은 예년과 다를 바가 없는데, 2009년 한국 경기는 검은 먹구름에 갇혀 앞을 내다보기 어렵다. 금융위기의 전 세계적 확산과 실물 경제로의 빠른 전이라는 현 상황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충격이다. 그런 만큼 과거의 틀에 구애받지 말고 과감하고 신속하게, 그리고 참신한 발상으로 이 파고를 넘어서야 할 것이다.

글_ 전영재(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글로벌 금융위기 확산으로 금융시장 불안 지속

글로벌 금융위기가 확산되며 세계 경제가 동반 침체의 늪에 빠져 들고 있다. 대외의존도가 높아 외부 충격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한국 경제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라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다. 이러한 불안 국면은 2009년에도 크게 개선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미국을 비롯한 각국의 적극적인 금융구제대책과 국제 정책 공조로 인해 글로벌 금융위기가 전면적인 파국의 양상으로 비화되지는 않을 전망이지만, 금융시장 불안의 완전 해소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금융 불안이 실물경제 침체로 전이된 상황이기에 가계 및 기업의 부실이 확산되어 이것이 다시 금융불안을 야기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아직 주택가격 하락이 진행 중이어서 금융기관의 손실 규모를 확정하기가 어려운 데다 경기 침체로 인한 실업 증가로 신용카드 사용자들의 소비자 신용 연체율이 증가하는 것도 불안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소비와 투자 부진으로 CDS(신용 디폴트 스왑) 등에 대한 위험을 키우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전반적으로 볼 때, 금융위기로 인한 극심한 유동성과 신용경색 현상은 해소되더라도 실물경제의 침체가 이어지면서 금융시장의 불안이 지속될 전

망이다. 특히 금융기관의 자산부채 구조조정도 금융시장의 회복을 더디게 하는 요인이다. 그동안 위험을 감수하면서 높은 레버리지를 활용해 고수익을 추구해온 금융기관들이 디레버리징(차입 청산)의 단계로 진입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위험자산을 축소하기 위한 자구 노력이 투자 위축은 물론 기존 자산의 매각을 통해 금융시장을 압박할 것이다.

한국 경제성장률 3.2%에 그칠 듯

2009년 세계 경제는 1.3% 성장에 그쳐 직전 침체기였던 2001년 1.5% 성장보다도 침체의 정도가 심화될 것이다. 미국, 일본, 유로 경제 모두 마이너스 성장으로 뒷걸음질 칠 것이며, 신흥개도국 시장도 본격적인 경기 둔화를 경험할 것이다.

2008년 4% 중반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한국 경제는 2009년 3.2%의 미약한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2000년 이후 한국 경제가 3%대의 성장을 보인 것은 단 두 차례뿐이었다. 2001년 IT 버블 붕괴로 세계 경제가 동반침체에 빠지면서 한국도 3.8% 성장에 그쳤으며 카드 버블 붕괴에 따라 내수가 마이너스 증가를 보인 2003년에는 성장률이 3.1%에

불과했다. 2001년의 경기침체는 수출부진에서, 2003년은 소비부진에서 비롯되었다면 2009년의 상황은 두 가지가 겹친 총체적 불안 국면이 진행될 것이다. 세계 경제의 둔화로 수출 증가세는 한 자릿수인 3.2%로 급감하며 수출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약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부진, 금융자산 가치의 하락 및 가계 부채 부담 증대 등이 개선되지 못해 민간 소비도 1.7% 증가에 그칠 것이다. 또한 기업의 채산성 악화와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되어 설비투자과 건설투자도 각각 2.3%와 1.3%의 증가율을 기록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내수 악화에 수출 부진까지 ‘엮힌 데 엮힌 격’

2008년부터 시작된 내수 부진은 2009년에도 그대로 이어질 전망이다. 고용부진으로 소비여력이 위축되고 가계 부실 확대, 부동산 및 주식시장 침체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에 따라 민간소비는 2%에도 못 미치는 증가율을 보일 것이다. 내수침체와 세계경기 부진에 따른 수출 증가세 둔화로 기업의 투자심리가 냉각되어 설비투자의 빠른 회복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얼어붙은 부동산 경기로 인해 건설투자도 크게 확대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8년에는 내수부진에도 불구하고 수출 호조로 4%대 중반이라는 잠재성장률에 근접한 성장세를 이룰 수 있었다. 그런데 2009년 성장률이 전년에 비해 1%p 이상 하락하리라 전망하는 데는 수출 증가세가 급격하게 둔화될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한다. 글로벌 실물 경기의 침체와 특히 신흥개도국 경제의 경기둔화는 대 개도국 수출 비중이 선진국 수출 비중을 넘어선 한국 수출에 결정적인 충격을 가할 것이다. 2001년에도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경기가 동반 하락하며 한국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로 12%나 감소한 바 있다. 당시보다 세계 경제 성장률이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2009년 한국 수출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그 때에 비해 중국 등 개도국이 세계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고, 이들 나라의 성장률은 2001년에 비해 높은 데다 조선, 플랜트 등 미리 수주한 수출 물량들이 2009년에도 실적으로 잡힐 것이기 때문에 수출 증가율이 플러스가 될 확률이 더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 증가세는 2008년 20% 수준에서 2009년에는 5% 수준으로 크게 떨어질 것이다.

그래도 희망은 있다

전반적인 상황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기대를 걸만한 희망의 싹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유가와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라 무역수지 및 경상수지의 개선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외화유동성에 대한 우려가 상당 부

분 축소되어 금융부문의 극심한 불안이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 또 물가 급등세도 진정되어 소비여력 확대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도 있다.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도 기대해 볼 만하다. 기존의 정부 대책들을 모두 종합하면 GDP 대비 3.7%에 달하는 총 33조 원이 경기 부양을 위해 투입된다.

금융위기의 전 세계적 확산과 실물경제로의 빠른 전이라는 현 상황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충격이다. 미증유(未曾有)의 충격인 만큼 과거의 틀에 구애받지 말고 과감하고 신속하게, 그리고 참신한 발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 금융부문에 유동성이 돌아가도록 공급함과 동시에 금융기관의 자금중개기능을 복원하여 가계 및 중소기업 등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자금을 수혈받도록 해야 한다. 경기 부양을 위한 충분한 실탄을 확보하여 신속하게 필요한 부문에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집행도 서둘러야 한다.

한국은 과거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역량을 발휘한 바 있다. 가계와 기업의 피나는 노력의 결과였지만, 대외환경 호조에 힘입은 바도 컸다. 이제는 돌파구를 안에서 찾아야 한다. 규제개혁, 감세, 성장 동력 발굴 등을 통해 경제 내의 공급 능력을 확대하는 것이 그것이다. 이러한 대책들은 단기적으로는 경기 활력을 불어일으킬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지속적 성장을 가능케 해 줄 것이다. 내외외환의 충격을 내적 체질 개선으로 극복해야 한다.

